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9

1997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예레미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9

1997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예레미야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2.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도록
3. 김창인 목사님과 당회장 김성관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6.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7.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8.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7년 9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기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예레미야 서론

예레미야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자신의 내밀한 감정까지도 숨김없이, 때로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감정까지도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후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되던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출신의 젊은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근동 아시아의 절대 강자였던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두 큰 나라 사이에서 갈광질광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될 것이며,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포로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공의로우신 심판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언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운명이 꺼져가는 암울한 시기에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재난 너머 장래 하나님의 승리까지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 본문의 구조

- | | |
|-------------------------|---------------------------|
| 1. 예레미야를 부르심(1장) | 2. 유다에 대한 경고와 교훈(2-35장) |
| 3. 예레미야의 고난과 핍박(36-38장) | 4.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39-45장) |
| 5. 열방에 대한 심판(46-51장) | 6. 역사적 회고(52장) |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 착고에 채웠더니』(20:2)

예레미야가 거리와 성문에서 또는 힌놈의 골짜기와 같은 교외에서 심판을 선포할 때는 제사장들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성전 뜰에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언(19:3-9; 11-13; 15)을 들은 제사장 바스홀은 심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1, 2절). 바스홀은 제사장이며, 성전과 그 경내에서의 질서를 관장하고 난동을 부리는 자들을 처리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29:26).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서 성전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예레미야를 붙잡아 매를 때리고 여호와와 그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감금시켰습니다. 이곳에 예레미야를 묶어둠으로 성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고, 더 이상 위험한 사상이 선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우둔한 자들은 말씀을 거부하며 파괴적인 책동을 꾸밉니다.

다음날 아침 풀려난 예레미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분명하게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스홀 개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판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소망에 대한 저주입니다(14:13).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을 통한 현실 인식에는 언제나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며, 때로는 구체적인 핍박까지도 발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고난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마음을 굳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 여호와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20:11)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께 내면의 깊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7-10절).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전한 메시지들로 인하여 백성들에게서 조롱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시고 계신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항변을 합니다. 이러한 동족의 냉대에 접한 뒤 실의에 빠진 예레미야는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서 더욱 타오르는 불과 같이 솟아나와 도저히 그냥 간직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9절). 그래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간절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낙심한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대적자들에게 복수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서 싸우고 계시기에 대적들은 궁극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11-13절). 아직 실제적인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던 선지자는 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14-18절). 그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랐으며 차라리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을 맛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② 김창인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3

(수) 두 갈래 길

찬송 / 253장 본문 / 렘 21:1-10

“...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21:8)

본 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두 길이 있음을 밝히고 그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두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 생명의 길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을 제시해 놓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9절)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생명의 길’이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우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곧 구원이요 생명의 방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으며, 근본적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순순히 징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곧 심판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소망하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둘째, 사망의 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경고(6:1-3)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대항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9절). 또한 무엇보다도 이것은 죄악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선조들의 전철을 되밟아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곤경의 날에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영 분별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시어 생명의 길로만 나가게 하소서. ② 김성관 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소서.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21:12)

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상실한 유다를 향하여 공의를 회복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끝 자가 없으리라.”(21:12) 유다는 이방인들과 같이 불법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학대하였고, 유력한 자 편에 서서 무죄한 사람들을 유죄로 몰아 억울하게 탈취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법을 통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재판을 통하여 죄지은 자들을 옹호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은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 일을 회개하도록 거듭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계속하여 이런 일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의를 행치 않고 있다면 즉시 그 일을 회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의를 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 이것이 나를 얹어 아니나 ... (22:16)

한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 나라는 도덕적으로 깊은 타락에 빠지고, 사치와 향락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 징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인 유다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창문을 달고, 귀한 백향목으로 그것을 입혔으며, 붉은 색으로 치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정상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그 집을 지었으며, 불공평으로 다락방을 지었고, 집을 지으려고 고용한 사람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치와 방종과 불법으로 가득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렇게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모들은 공평과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으며, 편안히 먹고 마시고, 그 길이 형통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눈과 마음으로 탐람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며, 압박과 강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 유다 왕 여호야김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를 슬피할 자가 없게 되고, 그는 포로가 되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할 때에 이런 일을 경고해 주셨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그들은 듣지 않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 알고 진실과 사랑을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23:5)

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그 백성들을 몰아내고 멸망시키며 흩어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인하여 유다의 지도자들을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친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실 것이며,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번성케 하시고, 참된 지도자를 그들 위에 세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백성을 위하여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할 것이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와 우리의 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 이 세상을 지혜와 공의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지도자들 대신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선한 목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지혜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좋으신 지도자이시며, 우리 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위해 선한 왕이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세상에 보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② 당회원들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특한지라 ... 내 집에서도 악을 발견하였노라 』(23:11)

하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모두 다 사특하게 행하였으며, 그들의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미련하여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으며, 유다의 선지자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간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굳게 하여 악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 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을 온 백성들에게 퍼뜨리는 악한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며, 그들이 말한 묵시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면서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과는 달리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경고해서 그 악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주신 목자들이 진리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③ 예배를 수종드는 위원(예배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23:28)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철저히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의 뜻을 실 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합니다.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자신의 영적인 능력도 강조합니다만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나가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사회가 영적으로 흐려졌을 때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안일과 평안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상숭배와 현세의 안일과 쾌락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누려오던 현세적 안일과 쾌락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규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도 얻고 동시에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죄악도 행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철저히 우리 자신의 명예와 안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말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준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4:7)

하 나님께서 이상 중에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가 하나님으신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광주리에는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 있는 백성들과 애굽에 이민 가 있는 유다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뉘우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토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충격으로 받아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비해 자기들이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반대였던 것입니다.

섰다고 자만하는 자들은 언제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여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살아야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25:5)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멀리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부정과 죄를 멀리 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이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과 죄의 길로 치달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죄의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유다는 70년 동안이나 이방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 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유다는 어느새 육신의 쾌락에 따라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한 죄악으로 인해 또 다시 이방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포로가 된 그들은 집과 고향과 나라를 잃고 형제 자매가 뿔뿔이 흩어지며 예루살렘 성전까지 잃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을 좇아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행여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진리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전력을 다하게 하소서.

☞ ... 보라 대풍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 (25:32)

하 나님은 당신의 백성 유다까지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70년간이나 이방의 포로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그 포로기간 동안에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신앙이 이어지고 연단되어 드디어 70년만에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것은 결코 이방이 유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은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치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기타 열방을 다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주로서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믿는 성도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세주가 되시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믿음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마지막 날 주님을 뵈을 때 영원한 구세주로 맞이할 수 있는 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늘 깨어서 언제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③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영적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 모든 백성이 듣더라”(26:7)

본문 말씀은 여호야김의 즉위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요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정한 시기와 장소와 대상에게 전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여호야김의 즉위 초”라는 어구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시기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또한 2절에 “여호와의 집 뜰에서”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고 있고,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라고 그 대상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한 말도 감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한 말도 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한 말도 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그는 “모든 말씀대로”백성에게 고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한 참 설교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7절에 예레미야의 말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 시일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을 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만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 나를 죽이면 정녕히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 돌아가게 하리라 ...”(26:15)

본 문에서 죽음을 무릎쓰고 선지자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예레미야의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멸망의 필연성이 그들의 완악함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진실한 사역자 상을 보여 줍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사실대로 담대히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그의 선지자직에 대한 성실성과 악에 대해 굽히지 않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오늘날 인기 유지에 급급하여 불의를 보고도 책망하지 않고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며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일부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줌과 동시에 세상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움츠리며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 자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완악한 자들의 과상적인 공격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생명을 보존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처럼, 우리들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멩에를 만들어 네 목에 얹고 ㄴ(27:2)

본 문은 시드기야 왕 즉위 초기에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줄과 멩에의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시드기야와 시드기야를 방문한 열국의 사신들에게 바벨론의 침입을 사실화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바벨론에게 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6-10절). 바벨론의 멩에 아래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족속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칼, 기근, 열병 등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언급한 후에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반되게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란을 도모하는 민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11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열방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포로 생활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더 나아가 포로 귀환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개인의 경험이나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 ▶ 기도 제목 / ① 이성에 근거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27:17)

남 유다 말기의 근동에서 바벨론이 득세할 때 남유다에 선포된 예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여 그를 섬기라는 것이요, 나머지 하나는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며, 남유다 왕국은 독립을 얻게 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길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 잘못된 기준을 따라 예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의 압제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과 혼란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나라의 패망을 예고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선택하였습니다. 둘째, 참 예언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겁장이의 예언으로 보였고 하나냐의 예언이 참으로 애국적인 것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한 예언이요, 선민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참 예언을 알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조국애와 동족을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수차례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한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진리의 말씀과 거짓 속임수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소멸시키시고 도덕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찬송 / 521장 본문 / 렘 28:1-17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28:9)

본 문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도전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을 꺾어 2년 내에 바벨론으로 옮겨간 기구를 가져오고(3절) 포로된 여고니야 왕과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4절)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회복, 평화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재앙과 징벌을 외쳤던 예레미야 앞에 정면 도전합니다. 더구나 하나냐는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을 취해 부러뜨리면서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확증합니다(10절). 이때 예레미야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11절). 아마도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냐의 메시지가 매우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며 예레미야는 궁지에 몰리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때를 기다리며 패배자처럼 조용히 물러나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진리일지라도 자칫 경건생활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리 수호에 힘썼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계 2:1-7)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처형하심으로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승리를 선포한 것을 보십시오(16, 17절). 우리의 승리는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전 3:7).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소서. ②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③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¹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29:13)

본 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4절).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 가는 환난의 때에 일반 선지자들은 하나냐와 같이 바벨론이 멸지 않아 망하고 백성들의 귀환이 조속히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28장). 이러한 잘못된 예언과 맹신에 대해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거짓 예언에 속아 방황하지 말고(8-9절) 잡혀간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라고 권합니다(4-7절). 유대 민족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로 정하신 기간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므로 적국에서 영구한 생활 대책을 세우라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소망 중에 바라라는 내용입니다(10-11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할 때마다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음을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70년 후에 분명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을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12-13절). 여기에서 우리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 놓여 있는 긴장과 또한 그 긴장 속에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 그들이 나 여호와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 함이니라.”(29:19)

본 문은 유다에 남은 자들(15-19절)과 거짓 선지자들(20-23절)의 운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의 심판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유다의 불순종에 기인하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란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27:17)에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조속한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을 갈망하며 유다에 잔류해 있던 자들로서 교만과 영적 무지로 인해 멸망을 자초한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 중 하나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무화과는 예수님께서 열매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것처럼(마 21장) 성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육적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마 5:13-16). 이러한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19절).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한 귀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와 그 종말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23절). 우리가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마 7:20)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우리는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자신 또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도들이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②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29:31)

본 문은 예레미야의 편지(5-23절)를 받아본 바벨론의 유다 포로들 중 대표자인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유다의 제사자장들과 백성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공개적으로 예레미야를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레미야에게 책망과 저주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25-28절). 앞서 23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살펴본 바, 더러운 행실과 거짓된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악함과 무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불의한 행위를 합리와 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기꺼이 사용하고 타인에게도 불의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는 죄의 전염성과 파괴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죄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단호함이 요구됩니다(마 5:29, 30).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첫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선지자직을 맡았다는 것입니다(31절).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들을 향한 경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그의 예언은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쳤고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현의 성도들은 늘 자신의 그릇된 확신이나 세속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나 점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 ① 죄의 심각성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비스바덴교회와 프랑크푸르트장로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30:11)

본 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말에 되어질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첫째, 죄의 멍에가 벗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종말의 때에 그 어떤 멍에보다도 더 우리를 얹어매고 비참하게 하였던 죄의 멍에가 완전히 벗겨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조의 땅으로 귀환하며, 찬양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내리누르던 죄의 멍에를 벗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원수인 사단의 파멸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철저히 파멸하시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의 권세가 최고조에 올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기게 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사모하는 다윗 왕을 마침내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9절).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시며,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으로 현지인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소서.

⁷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ㄹ(30:22)

예 레미야 30-33장은 그 내용의 성격상 '위로의 책'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본문 역시 30장 전반부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든 남자들마저도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극심할수록 해산의 기쁨을 누리게 될 시간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며 포로생활 동안에 받은 모든 상처를 싸매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죄로 인한 상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상처, 인생고로 인한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시며 번성케 하여 쇠잔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여 비천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고제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포로가 되어 신음하는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해매고 있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죄짐으로 인한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고통을 맛보지만 그 날에는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나 여호와와 …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고로 …”(31:3)

오 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어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와 바벨론의 포로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죄의 노예, 사단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랑보다 더 무궁한 사랑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무궁한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을 흠족케 합니다. 인간은 참된 생수를 마실 때에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한되고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으로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채워 줄 수가 없습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채워 줍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우리가 범죄할 때는 징계로 표현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잘못하면 책망하듯 깊이 생각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죄악을 회개하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징계의 연단을 잘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훈련이 있다는 것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늘 묵상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②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으로 중국인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31:33)

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인간의 내적 성품을 변화시키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규정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변화시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언약’ 이요(33절)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심비에 쓴 언약’ 입니다. 둘째, 준수할 능력을 함께 주시는 언약입니다. 34절에 있는 대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옛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사람도 없지만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언약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이루지 못했던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새 언약이 죄인을 구원하는 언약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새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새 언약에 참여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으로 수단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16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 2 (32:6)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최후 공격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몇 달 동안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를 투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용기있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욱 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예레미야가 그저 돈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속에 선포하며 실현하고자 애씁니다. 또한 자신의 가정과 사업에만 온 힘을 다 쏟아부으며 물질적인 번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함으로써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충현의 성도들은 예레미야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인술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도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주는 은혜를 천만 인에게 베푸시며 ...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32:18)

예레미야는 밭값을 지불하고 난 뒤에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를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자신의 생각과 기도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을 회상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을 다시 들려 주심으로써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제멋대로 사는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히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또 경외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재난을 그치고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을 예전처럼 안전하고도 기름진 곳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확신했던 그 하나님을 충현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삶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모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욱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려울 때, 힘들 때, 담대함으로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33:2)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반역 대신에, 고난과 슬픔 대신에 용서와 치유가,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순종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백성 위에 함께 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힘과 용기로 극복하게끔 해주시며 최악으로 얼룩져 있을 때는 채찍을 드셔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도록 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만드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그분의 생각과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일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은혜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릎꿇고 감사로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며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일을 하고 계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33:14)

본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구세주로 오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백성들을 대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지만 백성들은 언제나 죄와 반역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의 문제를 단번에 또한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이 일정하게 순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법칙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레위인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조롱을 퍼붓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에 대해 회의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충현의 성도들은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힘있게 생활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풀어놓으신 진리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계속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염병과 기근에 ...”(34:17)

인간은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하고 방백들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의 공격이 있었고 더군다나 모든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종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공격이 잠시 늦추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유케 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키고 노비를 삼는 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같은 이스라엘의 패역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선언은 겉으로 보면 긍정적인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보호의 팔을 풀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징계의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칼과 기근에 붙이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자유선언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기로 한 욕심과 죄악을 다시 움켜쥐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신실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견고한 피난처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서 누리는 자유를 배우게 하여 주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35:16)

본문에서 나오는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히브리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족속으로 ‘겐 족속’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대상 2:55).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باط도 레갑 족속이었습니다(민 10:29).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갑 족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레갑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들을 향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 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포도주를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 취해 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고 있다면 이제 그러한 것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소서. ② 북한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귀에 낭독하라 .(36:6)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기간은 요시아의 날로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였습니다. 요시아의 때란 요시아 통치 13년째 되던 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본 장의 말씀을 받은 때는 22년째 되던 해(BC 626-605년)였습니다. 이때는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의 중간기에 해당됩니다. 그는 요시아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말,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까지 4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된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은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아 시대와 같이 일종의 종교개혁기가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기간에 예레미야는 그의 말씀 선포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조국의 현실을 위해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그 완악함 앞에서 그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이 말씀으로 불타 오르게 하심으로써 지속적으로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외치고 외쳐도 결국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 앞에서도 그는 말씀을 외칩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하는 우리가 예레미야로부터 배워야 하는 종말적 선지자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백성들 앞에 직접 서지 못하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룩을 통해 말씀을 기술하게 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치지 않는 열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에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② 9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10월에도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사무엘하(1)

읽을 말씀 / 사무엘하 7장 18-29절

찬 송 / 424, 362장

◆ 함께 읽기 ◆

사무엘서는 히브리 정경 가운데 '사무엘'로 알려져 있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70인역 번역가들이 상·하 두 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이스라엘 왕국의 완전한 역사로 받아들여 그것들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왕국서'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서는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사사기 끝부분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상태로부터 다윗 아래에서 군주제(君主制)가 정착될 때까지 전개 과정과 다윗 치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서는 지파 동맹시대로부터 시작하여 블레셋과의 싸움을 거치면서 다윗 왕국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본서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부패와 죄로 인해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고,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청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원했던 왕인 사울은 하

나눔의 명으로 기름부음을 받지만 그의 실패는 결국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다윗왕조의 시대를 열게 합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사무엘하의 구조 ◆

1. 다윗의 초기 통치(1-8장)
2. 다윗 왕과 그의 궁전(9-20장)
3. 다윗의 노년(21-24장)

◆ 사무엘하 본문 연구 ◆

1. 다윗의 초기 통치(1-8장)

1) 다윗의 슬픔(1장)

- ①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도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슬픔입니다.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우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떠한 입장을 가졌습니까(삼상 18:1, 3)?

-
- ② 이같은 우정은 오늘날의 이기적인 시대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2) 유다의 왕이 된 다윗과 계속되는 전쟁(2-3장)

- ①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주저없이 왕 위에 앉혔습니다(2:1-4). 하지만 이스라엘도 이스보셋을 왕 위에 앉히게 되어 동족분쟁은 오랫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아사헬의 죽음과 아브넬의 반역 그리고 요압의 복수 등은 인간의 갈등과 욕심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어떻게 세워 주고 계십니까(3:1, 10)?

3) 통일왕국의 다윗(4-6장)

- ① 아브넬 사후에 혼란해진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틈타서 사울의 집에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죽인 후에 다윗에게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4:10-12)?
- ②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5:22-25)?

- ③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의 처신을 책망했던 미갈에게 내려진 벌은 무엇이었으며,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했었습니까(6:20-23)?

◆ 함께 나누기 ◆

1.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자신의 수치를 생각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던 것은 다윗의 철저한 신전의식(神前意識; Coram Deo)에서 나온 경건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같은 다윗의 행동을 비웃은 미갈의 처신은 다윗의 신전의식을 헤아리지 못한 불신의 소치였습니다. 당신의 삶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은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십시오.
2. 언약궤를 들 집을 원하는 다윗의 동기는 그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나단도 즉각 찬동하며 그 계획을 추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비록 성전은 아들 대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장막은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성전을 완성케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제한되실 수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제 2 과

사무엘하(2)

읽을 말씀 / 사무엘하 11장 1-13절
찬 송 / 421, 336장

4) 다윗과의 언약(7-8장)

- ①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주신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7:8-17)?

2. 다윗 왕과 그의 궁전(9-20장)

5) 므비보셋(9-10장)

- ① 사울의 유일한 합법적 계승자였던 므비보셋을 다윗은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9:7,8)?

6) 다윗의 범죄와 솔로몬의 탄생(11-12장)

① 밋세바가 잉태하였을 때 다윗이 범한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11:14-17, 26-27)?

② 나단의 간단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에 다윗은 태도를 고쳤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처벌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은 누구를 치셨습니까(12:15,16)? 이 같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7) 가정 음모사건(13장)

① 다말은 다윗의 계승권을 가진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불화를 초래하게 만든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다말에 대한 암논의 전후 행동은 그의 생각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까(13:12-16)?

② 다말 사건 2년 후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일을 계기로 복수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서 발생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예상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음모에 대한 다윗의 처신은 어떠하였습니까(13:21, 26-27)?

◆ 함께 나누기 ◆

1. 다윗과 밋세바의 사건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두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밋세바가 드러내놓고 목욕한 것에는 지붕에서 보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계획을 고의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와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도 간음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도 없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은 채 불신의 행동을 계속하는 이같은 인간의 행동이 우리에게서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2. 나단의 지적에 따른 다윗의 참회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답게 만드시며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결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에서 우러난 슬픔과 고백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살인 때문에 살인과 폭력이 그의 가족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가 범한 간음으로 인해 그의 아내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간음으로 인해 잉태된 아이는 자신을 철저히 낫추어 금식하던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도와 회개에 관해 얻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훈들을 나누어보십시오.

제 3 과

사무엘하(3)

읽을 말씀 / 사무엘하 16장 5-14절
찬 송 / 246, 249장

8) 돌아온 압살롬(14장)

① 요압은 어떤 의미에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까 (14:1, 7)?

② 압살롬은 아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14:28-33)?

9) 압살롬의 반역(15장)

① 압살롬은 4년에 걸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도적질 한 후에 그는 어떤 미명하에 모반을 시작합니까(15:8-9)?

② 싸움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자세는 매우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혼란 중에서도 단지 그의 가족과 그와 고락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떠나게 되지만, 그는 사독과 아비아달과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15:24-29)?

10) 도피하는 다윗(16-17장)

① 예루살렘에서 요단까지 가는 동안 사람들은 다윗을 돕는 자들과 그를 저주하는 자들로 나뉘어졌습니다. 특히 사울가(家)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반대편 계곡에서 다윗의 일행을 좇으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 일행에게 돌을 던졌는데, 다윗은 왜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까(16:9-14)?

② 예루살렘에 남게 된 후사는 반역자 아히도벨의 모략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만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랐더라면 다윗은 큰 위협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따랐을 때,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함께 나누기 ◆

1.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다윗과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왕궁의 출입이 자유로워졌고 왕의 축복을 한 몸에 받는 명실상부한 왕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훗날 이같은 법정상속자를 제쳐두고 그 왕위를 차지하는 사람은 정작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혼란의 와중에 서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고 후세의 방법이 채택되었을 때, 이 와중에서 다윗 일행은 바후립 어떤 사람의 그 집 여인의 도움으로 위험을 모면하게 됩니다. 새벽녘에 그들은 모두 다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요단 동편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우정이 위기에 빛을 발하며 다윗의 일행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평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준비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 4 과

사무엘하(4)

읽을 말씀 / 사무엘하 22장 1-13절

찬 송 / 439, 424장

11) 다윗의 승리(18-20장)

①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려 했으나 백성들이 말렸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주 잘 훈련된 직업 군인인 반면에 압살롬은 이스라엘 여기 저기에서 모인 훈련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시민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진 싸움은 다윗군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18:9-15)?

② 압살롬의 죽음을 접한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으며, 그러한 태도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반응을 갖게 했습니까(18:33-19:7)?

3. 다윗의 노년(21-24장)

12) 제거된 죄책과 다윗의 감사(21-22장)

① 사울로 인해 피를 흘린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은 다윗 시대에 삼년 기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억울함의 보상으로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21:5-9)?

②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일치하는 다윗의 감사 찬송시입니다. 28-31절을 읽고 이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해보십시오.

13)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인구조사(23-24장)

① 사무엘하 23장 8-39절은 다윗의 '용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용사들과 그들의 부하들은 다윗이 여러 해 동안에 걸쳐 자기 주위에 불러 모은 직업 군인들의 지휘관입니다. 이들 중 군장급은 '세 사람'이었으며, 두 번째 그룹은 '삼십인'으로 불렸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가운데 맨 끝에 헛 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까(39)?

② 다윗의 잘못된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으로 칠만의 백성이 온역으로 죽었습니다. 이같은 재앙 앞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이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24:17)?

◆ 함께 나누기 ◆

1. 와신상담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압살롬은 평소의 신중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다윗이 죽기까지 기다리거나, 하나님께서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계승할 것이라고 알려 주시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절제되지 못한 행동은 자신의 훌륭한 판단과 시각들을 어둡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사람들은 쉽게 울무에 빠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절제된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인구조사로 인한 온역의 재앙은 사람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던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7만명의 죽음 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되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지는 제사로 인해 이스라엘의 죄는 사함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땅을 값어치 지불하지 않은 채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놀랍게도 훗날 솔로몬 성전은 값을 주고 산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지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보여준 다윗의 자질은 매우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 중 당신의 자질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